

미술관 솔, 개관 1주년 특별 기획전

9월 2일까지 채묵화 작가 작품 39점 전시

미술관 솔(대표 서정만)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채묵화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작품은 총 39점이며, 이 중에는 작고하신 작가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 한국화단에는 각종 신(新)사조가 유입되고 생성되기 시작했다. 70년대 채묵화계열의 모더니즘 물결과 융합돼 공존해왔던 성향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들과 작품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때다.



미술관 솔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채묵화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다.(사진은 전시장 관람 모습)

미술의 국제화와 미술시장의 발달이라는 본격적인 현대미술의 국면에 처해 있었으며, 이에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화는 현대성으로 눈을 돌리는 양상을 보여준다.

1982년 남천 송수남을 중심으로한 '수묵화 운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비구상보다는 구상 쪽에 무게가 실렸고, 여기에 '수묵'이라는 전통적인 재료가 지닌 동양의 정신성과 그 표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당시 '한국화' 용어 사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작품 경향으로는 현실을 바탕으로 산과 들, 도시의 풍경, 일상의 인물들에 주목하면서 현대적인 표현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관 솔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현대성에 주목하고, 한국성의 특질을 세계에 보여 민족의 자긍심과 한국현대회화의 미래를 조감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5-70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 근대미술관, '고상준 화백 초대전' 개최

군산 출신 원로작가 초대전... 10월 23일까지 진행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분관인 군산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고상준 화백 초대전'을 개최한다.

고상준 작가는 군산에서 출생해 전주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르 샴퐁전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목우회전 등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각종 미술대전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예술가로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미를 주요 모티브로 자연의 생명감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고상준 작

가의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품은 장미가 주는 밝음, 사랑스러움, 향기로운, 그리고 세련된 화사함을 고상준 작가만의 개성적인 화풍으로 표현한 '장미 10여 점과 '월출산 가을', '월계마을의 삶', '어은동 포구' 등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대담한 붓터치로 표현해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군산 근대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기관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우수한 미술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4일까지 모집

무주군이 2022 하반기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까지 음악·그림·어학 등 다양한 장르·분야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문화원 회원가입과 함께 회비 2만 원과 강좌별 수강료 3만 원(재료비 별도)을 납부하면 된다. 강좌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하반기 15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학교 프

로그램은 상반기 연속 진행 강좌인 통기타 수목화 등 7개 강좌를 포함한 12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해금, 재봉틀 엮사이클링(upcycling), 우리악기로 배우보는 민요반주, 서예, 칼림바와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문화학교는 문화원 교육장과 최북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운영되며 다년간 관련 장르 및 분야에서 활동한 유능한 강사가 초빙됐다.

무주문화원 맹감상 원장은 "하반기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예비 희망자들의 의견을 대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통기타 강좌 모습

폭 수용해 과목을 개설했다"며 "군민들이 문화학교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 열린다

김제문화예술회관, 12일 상주단체 드림필 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상주단체 (사)드림필 하모니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개최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여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 및 성악가들과 전주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준비했다.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 풍으로 편곡한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한국 대표 민요 도라지를 연주곡으로 감상하고 특히 8.15 광복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가 조국의 광복을 기도하는 내용의 오페라 칸타타 중 '유관순의 기도'를 선보인다.

한편 김제시는 음악회에 앞서 7시 15분부터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여 순국선열의 순고한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관람권 예매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배부하며 전석 무료이다.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 포스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을 꽃으로 말하다' 전 개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울디, 9~28일 전주 서학동 사진미술관에서 진행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울디(uldy)가 오는 9월~28일까지 RE-HANDLE HANGUK(한국을 꽃으로 말하다)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전주 서학동 사진미술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적인 소재를 실험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6인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다. 참여작가로는 영상, 디지털 드로잉, 뜨개, 회화, 터프팅 등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제주도에서 도깨비 꽃으로 불리던 '수국', 불교의 상징 '연꽃', 한국의 물란 '실죽화', 절절한 사랑 이야기의 '동백',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리데기의 '살찐이꽃'까지 다양한 소재와 재료로 새로이 탄생한 21세기 한국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작가를 만나는 행사도 준비했다. 일정에 따라 작가의 작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울디(uldy) 체험형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자세한 정보는 울디 공식 인스타그램 (@uldy.official)과 전시기획자 최지승(010.6397.877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fficial)과 전시기획자 최지승(010.6397.877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